



산업보건단신

술과 약물 남용의 금단에 대한 지원

<이 세 훈>

지난 20여년동안 술의 소비량은 급증하고 있어 온 세상이 술잔치판이라고 까지 말하는 이도 있다. 주정의 소비량이 50% 이상 증가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맥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기간 동안 맥주생산량이 세계적으로 124% 증가하였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서 약물중독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볼때 마리화나, 헤로인 같은 마약의 중독자가 약 5천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암페타민이나 신경안정제 중독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마약중독이 서서히 퇴행성변화를 일으켜 비극을 초래시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마약중독의 확산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범법자의 50% 이상이 이러한 중독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는 나라도 있다. 교통사고 원인의 상당부분이 과음때문이다. 술중독은 심장질환, 암에 이어 사망원인의 3위에 까지 이른다.

미국에서 술중독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재물손상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490억~1,200억

불에 달한다. 그의 카나다는 연간 76억불, 영국은 15억불의 손실이 보고 되었다.

독일, 불란서 및 미국에서 보고 한바에 의하면 술중독자의 산업재해율은 보통사람에 비해 2~3배에 달한다. 술 혹은 마약중독자의 결근율은 보통사람에 비해 2배로써 미국의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은 연간 200억불이다.

이러한 중독의 빈도는 어느 직종이나 비슷하지만 그 위험도가 높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술중독은 선원, 법률가, 경영가, 군인 및 경찰근무자에서, 그리고 약물남용은 독신, 장거리 운전자, 비행사, 대량생산직 근로자, 의사, 간호원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한편 지각, 긴 점심시간, 조퇴는 술남용의 초기 증세이다. 이들은 허울 좋은 기술에 대해 수다를 떠는 반면 생산량은 줄고 마감시간을 어기며 일의 결정이나 업무내용이 건실하지 못하다. 약물중독자도 비슷하지만 약물의 급성 영향 때문에 그 정도가 더 심할 수 있다. 즉 업무수행이나 생산성의 저하가 더 빨리 온다.

이러한 중독자에게 의사가 말해 줄 첫째 권고는 근무중 음주 혹은 약물복용의 금지이다. 일단 결심을 하면 이러한 중독자가 습관을 과감히 중단하는 데에는 직장에서의 일이 호적지로서 특히 사표를 내느냐 해고당하느냐하는 기로에 놓인 자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일 수가 있다.

아직도 많은 사업장의 경영자나 조합이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여 근시안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과거 미국에서는 술중독자의 96% 이상이 해고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4천여 사업장에서 근로자보조계획을 개발한 후 술중독자의 80% 이상이 직종을 유지하면서 치료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근로시간 손실과 장해급여를 60~80% 감소시켰다. 근로자 개발비에 비해 이러한 계획의 경제적 효율은 약 2배에 달하지만 인간성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훨씬 더 크게 평가된다. 습관의 금단에는 사회적인 도움도 필요하다. 이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ILO(국제노동기구)는 WHO와의 협조하에 앞으로 다각적으로 연구와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물질남용의 예방, 치료, 재활에 대한 홍보용 킷도 포함되는데 고용주, 조합 등에는 이 킷을 1987년 초에 보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